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61호 [무게 제25870호] 주제 106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당의 핵심, 초급정치일군답게 사회주의 승리봉을 향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자

###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의 맹세문채택모임 진행

주체혁명의 새시대 당 건설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데서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은 전당의 당세포를 총성의 새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하게 내걸 우리 당의 핵심, 초급정치일군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에서 당세포가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명적지침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제 대회참가자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당세포를 당중앙을 받드는 역적불변의 초석으로 본뜬히 다져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이 드리는 맹세문채택모임이 26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동지, 김평해동지, 대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최희동지, 박태덕동지,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맹세문이 낭독되었다.

맹세문은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당을 그 어떤 천지동재에도 끄떡없는 벽철불굴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일심단결, 자력강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대회로 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맹세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 《당세포를 총성의 새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하게 내걸》은 현시기 당세포사업을 새로운



있게 벌려 공장과 농장, 일리마다에서 보배로, 인재로 떠받들려주는 고급기능공, 상의고인명수들이 수없이 자라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진인파악기술인재화의 열풍을 새차게 일으켜 우리의 진전을 방해하는 보신주의와 폐배주의, 기술신비주의, 수입병과 같은 온갖 사상적 병폐들을 흔적없이 태워버릴 것이라고 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의 실력이자 당세포의 전두력이며 혁명의 전진속도이라고 하면서 맹세문은 당세포위원장들이 당중앙으로부터 입석화된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문자로, 핵무의 칼바람정신으로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정신력의 강자, 무에서유를 창조해나가는 자력강생의 능수로 은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낯은 사업방법과 작풍에 총지부를 찍고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실천적모임으로 대중을 이끄는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 화선전우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맹세문은 당세포위원장들을 당의 핵심, 초급정치일군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이 있기에 당세포들의 전투력은 태백해지고 모든 전선에서는 혁명의 진군소리가 더 높게 울려 퍼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맹세문 낭독이 끝나자 모임참가자들은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신념과 의지를 담은 구호문을 우렁차게 외쳤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은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살선의 최전방초소에서 당세포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까지 제시한 웅대한 목표집행을 위한 공격전을 과감하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위력,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의에 넘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단계를 올려세우고 당의 병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기 위한 진로를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역적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맹세문은 대회참가자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역사적 사명을 뼈속깊이 자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의도대로 전당의 모든 당세포를 총성의 새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는 전열에는 언제나 당세포위원장들이 서있을 것이며 당의 평도적 권위를 옹호보위하는 사업에서 모든 당세포들이 오늘의 경위대, 원위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당조직사상생활의 모든 고리들이 당원들의 심장마다에 수병용위의 불길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게 하며 당의 본업을 훼손시키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모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당세포를 수병정사용위정신을 만장약한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건설동지사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과 끝까지 생사 운명을 함께 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진정한 동지세포, 진우세포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5대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당원들을 건설한 혁명가,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본뜬히 준비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맹세문은 대회참가자들이 주체의 인민관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혁명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의 성새를 역적같이 떠담드는 성룡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어머니의 사심없는 헌신성과 불타는 열

정으로 평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인간화기로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화원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원애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군중과 함께 흥하고 작업의 열광마다 귀에 축축 들어가게 당정책을 해설해주며 남모르는 마음속아픔을 풀어주기 위해 열백밤도 달게 재는 《우리》라고 불리우는 참된 당세포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맹세문은 당의 군사중시사상과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군도자들을 주체적인 전정관점으로 본뜬히 무장시키며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당정책의 절대적인 옹호자, 적극적인 선전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 권총들의 온갖 비렬한 제세압살책동을 길음마다 짓부셔버리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당정책관철의 척후병, 자력강생의 제일기수가 될 것이

라고 지적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독발시키는 도화선, 송풍기가 되어 경제강국건설의 진군마다에서 증산투쟁, 따라잡기, 따라배우기, 경쟁교환운동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다.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로동당내소리, 사회주의내소리가 높이 울려나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심장에 쏘아박고 인민생활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세포가 살아있고 당세포위원장이 맹렬하게 활동하는 그 어디서나 우리식 사회주의우월성의 상징인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호빛한 풍경을 펼쳐놓음으로써 온 나라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맹세문은 대회참가자들이 자력강생의 비결도 생산장상의 열기도 과학기술에 있다



# 사설

##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오늘 우리 공화국은 력사의 존엄한 약속을 해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천만군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그 승리를 확신하여 대고조전군에 비약의 박자를 가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뜻 깊게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5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작성하시어 발표하신것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건이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그 계급적, 인민적성격으로 보나 혁명적내용으로 보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력사상 가장 혁명적인 정치헌법이다. 여기에는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위업을 완수하는데 승리하고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화하였으며 국가사회의 모든 생활면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이 전면적으로 규정되어있다.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국가사회체제를 견고히 옹호고수할 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말장시할 수 있는 위대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자신들의 생명이요 생활인 사회주의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헌법을 가지게 된것은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명도통 때로서 생각할 수 없다.

혁명과 건설에서 오는 사회주의의 가능성과 역할에 언제나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하신데 이어 여러 분야의 법규범과 규정을 새로 제정하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국가사회체제를 법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완성시키기 위한 최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시였다. 이것은 주체의 인민관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고 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절대위인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에 온 나라 천만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열의를 담아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일성-김정일원리로 명명하도록 하시고 전민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을 비롯한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공포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는 경제건설과 혁명적전진성질로선을 제시하고 혁명적위업의 지휘를 법적으로 고착하시였다. 여기에는 인민대중중

심 사회주의의 국가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만대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구현되어있다.

당의 현명한 명도자께서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이 가장 공고한 법적기초에서 승승장구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반통일국책책동이 극도로 이룩되고있는 추에서도 우리 나라의 정치군사적, 경제역량이 강화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자주적살이에 굳건히 수호되고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이 우월하고 우리 인민정권이 위력하기때문이다. 력사와 현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거둔 성과와 함께 하면서 사회주의법을 구현하는 사업을 끝맺었어 심화시켜야 할 과제가 나설것이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주의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구현되어있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근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킬 때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체제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

는것은 현시기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와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책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다. 지금 미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제압살책책들을 전례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분열전화가 이룩되고있는 때에 사회주의적합의성을 조장시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짓을 다하고있다. 비사회주의적합의성의 엄중성과 해독성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유성해지고있는 때에 사회주의적합의성의 중요성을 깊이 체득하고 우리의 사회주의혁명정기를 허우는 매우 위험한 작용을 한다.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원리를 우리 사회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물거품이 되고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역량은 백방으로 강화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원리 법전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내내이며 사회에 혁명적법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함을 없이 철저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보여나간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원리를 가지

고 살며 혁명하는 중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혁명 국가법의 진보성과 민중성을 가르는 기본적도는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이익을 얼마나 법적으로 담보하는가 하는것이다. 우리 국가의 법은 필수불이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법률

이 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집행된다.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인민대중중심으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수령사상과 이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여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는것과 함께 학위제급의 통치수단으로 복무하고있는 자본주의수단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특타로 인식하여야 한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에 혁명적법정신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벌려 그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나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법정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생활한 현실자료에 기초하여 개별당파, 경제법률사상과 이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여야 한다.

모든 일꾼들이 혁명적준법정신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사회주의법정생활을 인민들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위력한 대중운동인 모범준법단위창조정령이동용을 더욱 활발히 벌려 모든 단위를 위법행위 없고 방정책관찰과 본인업무수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로 만들어야 한다.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정권기관들은 언제나 당직, 국가우리의 나라에서 법정행자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법이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온 사회에 혁명적법정신을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체제의 공고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 618건설돌격대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당의 승소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돌격대에 단련된 현양수지학용인공공로동자 박은애, 모한봉구역전진정권관리소 로동자 김영미, 대동강구역전진정권관리소 로동자 김진영, 중앙예측학원 교원 진만철은 돌격대원들에게 성의로운 지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여 주체적 사기와 감동을 전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였다.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갈 신념과 의지》를 힘차게 웨치며**

많은 하여온 남포시 와우도구역적당위원회 로동자 전수연은 맑은 혁명정신을 책임지고 수행하면서 건설사회의 생활에 뜨거운 열정의 정을 기울였다.

항랑도구역로동 로동자 로성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교향군을 훌륭히 꾸리는것을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마땅한 도로로 간주하고 대담건설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는 돌격대원들에게 지성을 다하였다.

없는 분포기관,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을 붙심 함으로써 도와주었다.

건설의 대변정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벽 안길에 실망의 박동은 맞우며 의혁연 구원 선하단위 의사 김진국, 평성시당원관 리소 로동자 김일순, 정진시대출판사 로동자 김영철은 온 가족의 지성이 어두 람은 후방로동자들을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의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성지를 더욱 훌륭히 꾸리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제7기 제2차전진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헌신해갈 의지에 넘쳐있다.

##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갈 신념과 의지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하신 연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화하자》에 대한 반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만 강화하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 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애 무서**

울것이 없고 못해낸 일이 없습니다.》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당의 당원

들과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세포를 우리 당을 떠받치는 역적본위의 초석으로 다지고 당정책 관철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는 전위대로서 본분의 꾸러나갈 불같은 열에 넘쳐있다.

##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초급정치일꾼에게

정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전기수리직장 부문담당위원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고보니 격동된 심정을 글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바로 앞에는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화하는 사업은 무조건적으로 책임진인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세포위원장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의 초급정치일꾼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자각하고 분별하여 현치나날 때 당세포는 강화될것이요 우리 혁명의 전우들은 더욱 높아지고 우리 혁명은 더 빨리 전진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블로 더욱 든든히 준비시켜나갈 것이다.

공지와 자부심이 새모임의 모든 당원들을 건설한 혁명가,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로 본선의 준비시키는 데 기본을 두고 당정책관철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나갔다. 또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단견적 혁명파 열을 훌륭히 수행하는것이 당세 포였음이 아닌 첫째는 임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진성정의를 더욱의 집적정치체를 발동하여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자신들이 어렵고 힘든 모용이 남면서 어깨를 들이밀면서 이신학 의 기능을 높이 발휘하며 혁 명적수양을 쫓고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바와 같이 당세포를 당중앙의 구성과 의도에 맞게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안고 당세 포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기 위하여 적극 분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적일 것들은 영광의 일에서 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 《나를 따라 앞으로!》를 힘차게 웨치며

림은철 혜산형원장산 6월3 일경 당세포위원장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당세포가 나아갈 길을 원히 밝혀주는 미경으로 보고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까지 떠나 나면 최후대위치한 우리 평민 을 찾아주시어 아버지장군님께서 향신로동계급이 향신정치후 40여년간 불타는 애국의 열혈 을 안고 집총은 정강을 제련수 들에 제애로 보내주으로써 나라

관철과 혁명적투쟁으로 이끌어 나가는에서 몇백마리의 말모다 든 든 감히함을 가진다고 하시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실감해 호이었고 늘 입을 뿔뿔, 세뿔이 떨어지고 위 고 도 허비 어렵고 힘든 일이 는것을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9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새로 개편된 삼지 연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의 여러곳을 돌이보고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답게 훌륭 히 꾸려졌다고 하시였다.

《나를 따라 앞으로!》를 힘차게 웨치며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완공단 계에 이른 삼지연성전역과 삼지 연문화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전선유공 회보형사관을 보시면서 삼지연군 구리에서 지원하신 인민대중 중대원을 가슴에 안아주시고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혁명의 성지 배두산에 오르신 소식,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를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나를 따라 앞으로!》를 힘차게 웨치며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삼지연군 에 정중히 모신 김일성장군의 동상이 삼가 인상을 드러시켰다.

《나를 따라 앞으로!》를 힘차게 웨치며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 당세포사업을 개선하는데 주력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이렇게 토로하였다.



# 자력갱생의 고귀한 산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재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 받은 순천메기공장을 돌아보고

## 어머니당의 사랑속에 일떠선 메기생산기지

## 일군들의 탄복

위대한 어머니당의 송고인 인민 생활에 떠날려는 양어의 주체화, 과학화, 집약화, 고품질화가 실현된 순천메기공장.

얼마전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순천메기공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새로 태어난 공장,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으로 창조한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 104 (2015)년 12월 평안남도에서 순천메기공장을 찾으신 때에 순천메기공장 건설에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실제형성안을 친히 지도해주셨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생활의 송고인 뜻을 상징으로 새긴 평안남도인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1월 평안남도 평안에서 돌아오시고 순천메기공장을 찾으셨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 생활의 또 하나의 창조물이 일떠선 데 대하여 그토록 만족하시었다.

관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그 얼마나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넘쳐 있었는가.

도에서는 메기공장에 자력갱생을 실현할 줄을 거다 도인의 공장, 기업소들이 있다. 건설에 리용된 자재들과 석갈고른 외장재, 구내에 깔아놓은 보도블록도 모두 자력으로 만든 것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료공장의 생화학사료생산을 보아주시면서 우리가 만든 설비를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원료, 자재를 물론 설비도 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지력갱생, 자급자족이 제일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알배우기 및 새끼메기조종에 불리하여 알배우기와 새끼메기조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도 하시었다. 새끼메기조종에서는 물론이고 단백맥이를 잘 보강하는것이 기본이라고, 사탕도 어릴 때 잘 먹어야 제대로 자라나기처럼 메기도 먹이붙임을 할 때 영양가가 높은 단백맥이를 더 많이 먹여야 키가 크고 튼튼하다고 하시며 물을 맑게 하여 애민한 새끼메기의 사육법을 늘일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길 열렬히 기대하시었다.

이제는 꽃마디에 현대적인 양어장과 종이장, 메기공장들이 정성적으로 일떠섰다.

물길만, 고기 길이라는 관념이 도처에서 떠져오르고 부러만 보이던 카슴호숫반 철강공업이 양어, 바다양어, 자라양식의 최 유종을 만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혈을 바쳐 마련해주신것이기에 양어못보다에서 울려부르는 목소리가 그토록 유성하게 가슴에 파고든것 아니냐.

뜨거운 감촉이 젖어있는 우리의 귀전에 물소리는 더욱 정겹게 울려퍼졌다.

불경정은 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길러달라고 손사치는 것만 같은 그 소리,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와 더불어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웠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물소리, 민정 그것은 이 땅 어디서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풀들이 울려부르는 행복의 웃음소리, 고무줄에 목이 매여 리치는 감사의 노래소리였다.

인민위한 뜨거운 정을 담았던 그 흐르고흐르는 사랑의 물소리였다.

본사기자 승철진

주기도 하실 때 자재로운 스승의 존엄을 우리들은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그 얼마나 뜨거웠을 것인가.

그날 알배우기를 며칠후에 하려고 한다는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알배우기 기술자들의 발도발 발도록 하여주시고 머리가 높아지지 않으면서 메기알배우기는 경험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기술자들이 오면 그들에게서 알배우기와 관련된 제기되는 문제를 배워야 하겠다고 이시시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은 그분이 아니었다.

현지지도의 그날 국가과학원에서 순천메기공장의 양어못들에 자동수감장치와 자동조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과 자동배양기를 받아들이는 사업을 도와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진 가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일군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들은 지난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메기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게 최근에 일떠선 현대적인 메기 공장들을 참관하도록 하여주시고 10월달에는 생산량이 높은 메기들 거두수 있게 종자도 보내주도록 해 주신 사실이 머슴과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박박을 씹은 양어못에 들어서서 공장에서 거슬러오르며 메기 생산을 위해 2회적이 상 할것으로 계획하고있었다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양어못에서 부부와 숙작, 파를 비롯한 남새를 재배하고있었다는것을 보시고는 이렇하게 하면 온실을 따로 짓지 않아도 남새를 생산할수 있을것이라고, 남새를 많이 생산하려면 공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새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었다.

이것 못할 그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시리라고있음을 심장으로 걸고있었다며 언제나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할거지라고 찾아하여 경애하는 그이께 기쁨을 드릴 일로 가슴 불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등고로 가지는 길에 공장에서 건설한 차고로 보시고 혼전기계를 맡아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있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료를 늘일수 있는것을 비롯하여 경영활동을 세대로 하여준 점진적자들이 있어 왔다고 하시면서 각종 용진기계를 배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수님에게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일을 할거지라고 찾아하여 경애하는 그이께 기쁨을 드릴 일로 가슴 불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등고로 가지는 길에 공장에서 건설한 차고로 보시고 혼전기계를 맡아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있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료를 늘일수 있는것을 비롯하여 경영활동을 세대로 하여준 점진적자들이 있어 왔다고 하시면서 각종 용진기계를 배

주기도 하실 때 자재로운 스승의 존엄을 우리들은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그 얼마나 뜨거웠을 것인가.

그날 알배우기를 며칠후에 하려고 한다는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알배우기 기술자들의 발도발 발도록 하여주시고 머리가 높아지지 않으면서 메기알배우기는 경험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기술자들이 오면 그들에게서 알배우기와 관련된 제기되는 문제를 배워야 하겠다고 이시시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은 그분이 아니었다.

현지지도의 그날 국가과학원에서 순천메기공장의 양어못들에 자동수감장치와 자동조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과 자동배양기를 받아들이는 사업을 도와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진 가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일군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들은 지난 5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메기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게 최근에 일떠선 현대적인 메기 공장들을 참관하도록 하여주시고 10월달에는 생산량이 높은 메기들 거두수 있게 종자도 보내주도록 해 주신 사실이 머슴과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박박을 씹은 양어못에 들어서서 공장에서 거슬러오르며 메기 생산을 위해 2회적이 상 할것으로 계획하고있었다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양어못에서 부부와 숙작, 파를 비롯한 남새를 재배하고있었다는것을 보시고는 이렇하게 하면 온실을 따로 짓지 않아도 남새를 생산할수 있을것이라고, 남새를 많이 생산하려면 공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새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었다.

이것 못할 그날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시리라고있음을 심장으로 걸고있었다며 언제나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할거지라고 찾아하여 경애하는 그이께 기쁨을 드릴 일로 가슴 불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등고로 가지는 길에 공장에서 건설한 차고로 보시고 혼전기계를 맡아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있다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료를 늘일수 있는것을 비롯하여 경영활동을 세대로 하여준 점진적자들이 있어 왔다고 하시면서 각종 용진기계를 배

최근 양어기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날로 많아지고 있다. 일군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온 나라 일을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문기술도 만큼할 겸한 양어기술을 소유하고계신다는 대하어는 아니며 이는 모를것이다.

순천메기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메기조종에서 미세한 온도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군들에게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메기조종에서 물론 온도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똑똑히 알게 되었던것이다.

여러 부분의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자들이 가서에서도 전문기술자들도 미처 생각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아자아들이 다시금 눈에 삼삼 밝혀와 일군들은 뜨거웠을 삼기였다.

**작 아 도 큰 《 화 분 》**

규모있게 일떠선 야외박막에 가보면 자그마한 《화분》들이 수없이 늘어났다.

여기저기 종류의 남새를 재배하는 또다른 《화분》들이었다.

양어 전문으로 하는 못인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시선은 늘 메기들이 옥슬거리는 못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공장 일떠서 이제 수수일이 지났지만 이 아름다운 남새《화분》들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글 특약기자 오철훈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최근 양어기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날로 많아지고 있다. 일군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온 나라 일을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문기술도 만큼할 겸한 양어기술을 소유하고계신다는 대하어는 아니며 이는 모를것이다.

순천메기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메기조종에서 미세한 온도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군들에게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메기조종에서 물론 온도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똑똑히 알게 되었던것이다.

여러 부분의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자들이 가서에서도 전문기술자들도 미처 생각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아자아들이 다시금 눈에 삼삼 밝혀와 일군들은 뜨거웠을 삼기였다.

**작 아 도 큰 《 화 분 》**

규모있게 일떠선 야외박막에 가보면 자그마한 《화분》들이 수없이 늘어났다.

여기저기 종류의 남새를 재배하는 또다른 《화분》들이었다.

양어 전문으로 하는 못인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시선은 늘 메기들이 옥슬거리는 못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공장 일떠서 이제 수수일이 지났지만 이 아름다운 남새《화분》들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글 특약기자 오철훈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양어에서 중요한것의 하나가 물이다.

그때서인지 순천메기공장의 그 어디서나 물려오는것이 다 틀어지지 않았다.

물고기가 옥슬거리는 못들마다서 뛰어들어 물러오는 물소리, 물소리...

순천메기발전소에서 전기생산에 리용된 더운물이 시간간 수백m의 공장으로 흘러드는 물체순환제까지 세워져있어 불적 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데려오신 그날 흥겨우면서부터 밤늦도록 버림없이 지는 정발 부지런히 일하게 되었다는 웃음거리며 공장일군의 이야기가 커서인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할리 세상에 부럽지 않은 유복하고 행복찬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물이 부지런했다.

그 말을 되뇌어보느라 새로 건설한 관개수로를 따라 높고벽면 강물이 일하리 간다면 어찌 않을 흥겨운 시구일이 떠올라 마음을 자못 흥그워졌다. 자연을 다스려 인민의 부리를 증

진해나가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물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것이다.

더 가는 꽃 조국건설 꽃이 피러가는 푸르름을 노래하고 기운차게 흐르는 압록강의 거대한 흐름이 시시때때로 떨어진 대나무의 자연호흡소리를 따라 일두삼심리별을 적시

이 있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양어장과 종이장, 메기공장들이 정성적으로 일떠섰다.

물길만, 고기 길이라는 관념이 도처에서 떠져오르고 부러만 보이던 카슴호숫반 철강공업이 양어, 바다양어, 자라양식의 최 유종을 만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혈을 바쳐 마련해주신것이기에 양어못보다에서 울려부르는 목소리가 그토록 유성하게 가슴에 파고든것 아니냐.

뜨거운 감촉이 젖어있는 우리의 귀전에 물소리는 더욱 정겹게 울려퍼졌다.

불경정은 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길러달라고 손사치는 것만 같은 그 소리,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와 더불어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웠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물소리, 민정 그것은 이 땅 어디서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풀들이 울려부르는 행복의 웃음소리, 고무줄에 목이 매여 리치는 감사의 노래소리였다.

인민위한 뜨거운 정을 담았던 그 흐르고흐르는 사랑의 물소리였다.

본사기자 승철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나타나 그 어디 가나 울려퍼져서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는 꽃마디에 현대적인 양어장과 종이장, 메기공장들이 정성적으로 일떠섰다.

물길만, 고기 길이라는 관념이 도처에서 떠져오르고 부러만 보이던 카슴호숫반 철강공업이 양어, 바다양어, 자라양식의 최 유종을 만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혈을 바쳐 마련해주신것이기에 양어못보다에서 울려부르는 목소리가 그토록 유성하게 가슴에 파고든것 아니냐.

뜨거운 감촉이 젖어있는 우리의 귀전에 물소리는 더욱 정겹게 울려퍼졌다.

불경정은 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길러달라고 손사치는 것만 같은 그 소리,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와 더불어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웠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물소리, 민정 그것은 이 땅 어디서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풀들이 울려부르는 행복의 웃음소리, 고무줄에 목이 매여 리치는 감사의 노래소리였다.

인민위한 뜨거운 정을 담았던 그 흐르고흐르는 사랑의 물소리였다.

본사기자 승철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나타나 그 어디 가나 울려퍼져서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는 꽃마디에 현대적인 양어장과 종이장, 메기공장들이 정성적으로 일떠섰다.

물길만, 고기 길이라는 관념이 도처에서 떠져오르고 부러만 보이던 카슴호숫반 철강공업이 양어, 바다양어, 자라양식의 최 유종을 만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혈을 바쳐 마련해주신것이기에 양어못보다에서 울려부르는 목소리가 그토록 유성하게 가슴에 파고든것 아니냐.

뜨거운 감촉이 젖어있는 우리의 귀전에 물소리는 더욱 정겹게 울려퍼졌다.

불경정은 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길러달라고 손사치는 것만 같은 그 소리,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와 더불어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웠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물소리, 민정 그것은 이 땅 어디서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풀들이 울려부르는 행복의 웃음소리, 고무줄에 목이 매여 리치는 감사의 노래소리였다.

인민위한 뜨거운 정을 담았던 그 흐르고흐르는 사랑의 물소리였다.

본사기자 승철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나타나 그 어디 가나 울려퍼져서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는 꽃마디에 현대적인 양어장과 종이장, 메기공장들이 정성적으로 일떠섰다.

물길만, 고기 길이라는 관념이 도처에서 떠져오르고 부러만 보이던 카슴호숫반 철강공업이 양어, 바다양어, 자라양식의 최 유종을 만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혈을 바쳐 마련해주신것이기에 양어못보다에서 울려부르는 목소리가 그토록 유성하게 가슴에 파고든것 아니냐.

뜨거운 감촉이 젖어있는 우리의 귀전에 물소리는 더욱 정겹게 울려퍼졌다.

불경정은 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길러달라고 손사치는 것만 같은 그 소리,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와 더불어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웠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물소리, 민정 그것은 이 땅 어디서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풀들이 울려부르는 행복의 웃음소리, 고무줄에 목이 매여 리치는 감사의 노래소리였다.

인민위한 뜨거운 정을 담았던 그 흐르고흐르는 사랑의 물소리였다.

본사기자 승철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나타나 그 어디 가나 울려퍼져서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는 꽃마디에 현대적인 양어장과 종이장, 메기공장들이 정성적으로 일떠섰다.

물길만, 고기 길이라는 관념이 도처에서 떠져오르고 부러만 보이던 카슴호숫반 철강공업이 양어, 바다양어, 자라양식의 최 유종을 만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혈을 바쳐 마련해주신것이기에 양어못보다에서 울려부르는 목소리가 그토록 유성하게 가슴에 파고든것 아니냐.

뜨거운 감촉이 젖어있는 우리의 귀전에 물소리는 더욱 정겹게 울려퍼졌다.

불경정은 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길러달라고 손사치는 것만 같은 그 소리,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와 더불어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웠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물소리, 민정 그것은 이 땅 어디서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풀들이 울려부르는 행복의 웃음소리, 고무줄에 목이 매여 리치는 감사의 노래소리였다.

인민위한 뜨거운 정을 담았던 그 흐르고흐르는 사랑의 물소리였다.

본사기자 승철진

## 수필 < 사랑의 물소리 >

이제는 꽃마디에 현대적인 양어장과 종이장, 메기공장들이 정성적으로 일떠섰다.

물길만, 고기 길이라는 관념이 도처에서 떠져오르고 부러만 보이던 카슴호숫반 철강공업이 양어, 바다양어, 자라양식의 최 유종을 만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혈을 바쳐 마련해주신것이기에 양어못보다에서 울려부르는 목소리가 그토록 유성하게 가슴에 파고든것 아니냐.

뜨거운 감촉이 젖어있는 우리의 귀전에 물소리는 더욱 정겹게 울려퍼졌다.

불경정은 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길러달라고 손사치는 것만 같은 그 소리,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와 더불어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웠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물소리, 민정 그것은 이 땅 어디서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풀들이 울려부르는 행복의 웃음소리, 고무줄에 목이 매여 리치는 감사의 노래소리였다.

인민위한 뜨거운 정을 담았던 그 흐르고흐르는 사랑의 물소리였다.

본사기자 승철진

## 백옥같은 마음을 지닌 위훈의 창조자들

지난 11월 28일부 당보의 지면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김정은동지께서 순천메기공장 일군, 종업원들과 함께 찍으신 기념사진이 정중히 보시였다.

그날의 영광을 자신들보다 함께 받아안은것만 같이 환희에 넘쳐 기념사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공장건설에 참가하였던 평안남도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보았을 때 건설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외 부름이려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같이 산도 옮기고 댕다도 매우는 기적같은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력이며 기쁨입니다.》

연전속연적 2만 4천여㎡에 달하는 수직계 대상의 건축공사, 130여종에 200여대의 설비 조립...

아름다운 과제였다.

이리 멀려놓은 중요한 대상건설이 한들이 아닌 조건에서 현대적인 메기공장건설을 꾸려나가는것으로 해낸수 있었는가는 우리들이 일군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최근 양어기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날로 많아지고 있다. 일군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온 나라 일을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문기술도 만큼할 겸한 양어기술을 소유하고계신다는 대하어는 아니며 이는 모를것이다.

순천메기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메기조종에서 미세한 온도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군들에게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메기조종에서 물론 온도보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똑똑히 알게 되었던것이다.

여러 부분의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자들이 가서에서도 전문기술자들도 미처 생각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아자아들이 다시금 눈에 삼삼 밝혀와 일군들은 뜨거웠을 삼기였다.

**작 아 도 큰 《 화 분 》**

규모있게 일떠선 야외박막에 가보면 자그마한 《화분》들이 수없이 늘어났다.

여기저기 종류의 남새를 재배하는 또다른 《화분》들이었다.

양어 전문으로 하는 못인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시선은 늘 메기들이 옥슬거리는 못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공장 일떠서 이제 수수일이 지났지만 이 아름다운 남새《화분》들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글 특약기자 오철훈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나타나 그 어디 가나 울려퍼져서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는 꽃마디에 현대적인 양어장과 종이장, 메기공장들이 정성적으로 일떠섰다.

물길만, 고기 길이라는 관념이 도처에서 떠져오르고 부러만 보이던 카슴호숫반 철강공업이 양어, 바다양어, 자라양식의 최 유종을 만들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심혈을 바쳐 마련해주신것이기에 양어못보다에서 울려부르는 목소리가 그토록 유성하게 가슴에 파고든것 아니냐.

뜨거운 감촉이 젖어있는 우리의 귀전에 물소리는 더욱 정겹게 울려퍼졌다.

불경정은 하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길러달라고 손사치는 것만 같은 그 소리,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와 더불어 신선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어려웠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물소리, 민정 그것은 이 땅 어디서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풀들이 울려부르는 행복의 웃음소리, 고무줄에 목이 매여 리치는 감사의 노래소리였다.

인민위한 뜨거운 정을 담았던 그 흐르고흐르는 사랑의 물소리였다.

본사기자 승철진



#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 누려가는 값높은 삶

##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김정숙 평양제사공장

우리 당의 마시로는 축복속에 김일성영장재사용장 로동자합속에서 2017년의 첫 새겨들을 한 달 그날로부터 어느덧 한 해가 되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숙이시여 새겨들이면희상을 받아안고 펼칠행복에 잠 못 들린 로동자공간의 북반은 주인들, 그들의 1년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숙이시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인제나 옹배에 겨워있는 인민의 생활에 있다.》

우리는 자기 눈으로 감상이었다. 로동자합속은 금방 공중을 하고 묻을 일씩 건넌것같다. 합속생들도 1년전에 만났던 그 처녀들이건만 너도나도 보름달처럼 환해진 모습이 아직도 활짝 한 함박웃음을 보는데 찾아왔다. 남들이 분세라 밤에만 띠구관악에 내하던 아저씨의 생동이기도 이제는 휴잡을 없는 선수들이 되었다.

합속책임자 황기복동지의 말에 의하면 처녀들의 로동수준도 그야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그야나 처녀들에서 배워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문화정서생활도 흥겨워 처녀들은 너너들이 명가

수가 되었다고 한다. 그 모든 자랑에서 가장 큰 자랑은 올해에 다녔던 인민경제계획안자들이 부쩍 늘어났었다.

당장건기념일을 앞둔 지난 10월초 공장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날 김정숙, 박일주동지들은 5년만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다. 그들과 나란히 다녔던 인민경제계획안자들이 대 대다수가 다름아닌 로동자합속의 처녀들이라고 한다.

우리의 걸음은 저도모르게 사연도 깊은 3층 6호실로 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소 다리가 가진 오빠에서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시다.》

《조선로동당 부속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일도, 사는 곳도, 나이도 서로 달랐다. 하지만 회한 로동자공간의 한민안이라고 보고싶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몰입듯이 돌아서던 한민안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한민안이었다. 동무들이아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로동자합속이라고! 《이 공장은 집에서 하루만이라도 있어보고싶구만, 동무들이 정말 부럽다.》라고 격정을

이어서 묘향산선생님, 학교에 입학하여서는 담임선생님들이 진땀처럼 뿔뿔이었고 사회에 진출하여서는 조직과 집단이 나의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온 나라가 최 목한 대가장을 이룬 사회주의 내 조국의 마시한 손길임을 나는 한해뒤에 절이 들면서 깨달

어는 것이요? 인민의 영광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것은 인민의 힘과 사랑에 의해서

**조국은 내 삶의 보금자리**

바로 조국인.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북반을 누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 하듯 나도 이 말을 자주 되뇌이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절이 없는 인생의 자유자격을 한 추억속에 돌이켜보곤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걸마드는데 갈수록 없다.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처녀이도 어디에 있을까.

나는 부모의 따뜻한 정을 모르고 자랐다.

은 나야 허미처럼 조여야 했던 아련했던 고인의 시기 나의 부모는 칠부지인 나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사실 그때 나의 처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한 갖가지 막대한 처럼 버림받았을 고이의 비참한 운명이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나는 배고픈 실음, 집없는 실음을 모르고 자랐다. 유치원

로동자합속을 찾아서

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고 공장 창립 70돐을 맞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온 공장은 감동과 흥분된 모습 모두가 보람의 주로에서 하루를 열을맞았다고 내달았다. 그 일당은는 황동익원장님께서 주신 김정숙, 박일주동지들이 시었다.

세 기대가 손에 붙지 않아 하루일 끝마다 일해도 총처럼 신심이 뛰여오르지 않을 때 그 발은 정말 눈물이 나도록 안다 까왔다고 한다. 그들은 한시바 바 기회를 편마하하 위하여 일미에서 새날을 맞이하곤 했다. 그날들이 직장마다에서는 따라와서, 따라와주어, 경철교환 운동의 열풍이 세 채까지 일어 났었다. 비단실목포를 마련해가는 조사공들의 위에는 함께 말을 지새우며 뜨거운 열과 정을 다해 헌신으로 떠밀어준 김명환 지휘관 비롯한 로동자합속과 해 주며 말이 달도록 뛰던 황기복 동무를 비롯한 합속의 미더운 어머니들이 시었다.

《내가 너쪽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 공장, 이 합속에서 생활하고 싶습시다. 정말 인민이 주인인 세상, 로동자공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느냐 하는 공자의 지부신기에 대한 격언이 아니겠는가. 《합속이 로동자합속을 돌아보는 심정을 황동익원장이 주셨습다.》

《내가 너쪽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이 공장, 이 합속에서 생활하고 싶습시다. 정말 인민이 주인인 세상, 로동자공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느냐 하는 공자의 지부신기에 대한 격언이 아니겠는가. 《합속이 로동자합속을 돌아보는 심정을 황동익원장이 주셨습다.》

《합속이 로동자합속을 돌아보는 심정을 황동익원장이 주셨습다.》

19살짜기 신오정동무는 이렇게 전정을 토로하였다. 나의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내 모습을 한민안이라고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바로 로동자합속의 주인공 나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합흥시 동흥산구역편의봉사

사업소 신발수리공 리동룡동무

얼마전 합흥시 동흥산구역편의봉사사업소에 경사가 갔다. 평범한 신발수리공에 불과한 리동룡동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숙이시여를 수어받는 크나큰 영향을 지니었던 것이다.

직장에서,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리동룡동무에게 축하의 인사말 보내주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귀하고 천한 직업이 따로 없습니다.》

《합흥시 동흥산구역편의봉사사업소 신발수리공 리동룡동무는 헌생을 전의봉사부에서 신발수리공으로 일해왔다. 지금으로부터 24년전 12월의 어느날 구역에서 일회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리동룡동무의 어머니는 세 남매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옛날같은 구두쟁이로 천 대탈고 말수일았을 내나 너희 아버지 딸의 손잡고 묵밭을 살을 누리고있으니 정말 생각이 많았는지, 너는 교마을이 세도를 위해 너희들 신발수리공으로 일해왔으면 한다.》 이렇게 되어 리동룡동무와 그의 두 누님들은 부모의 뜻을 이어 신발수리공이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 합흥당에 가

고 빛내주시는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꿈같은 현실입니다. 《우리 딸씨를 한민 해물가? 자신있지?》 《예!》

《합흥시 동흥산구역편의봉사사업소 신발수리공 리동룡동무는 헌생을 전의봉사부에서 신발수리공으로 일해왔다.》

《합흥시 동흥산구역편의봉사사업소 신발수리공 리동룡동무는 헌생을 전의봉사부에서 신발수리공으로 일해왔다.》

《합흥시 동흥산구역편의봉사사업소 신발수리공 리동룡동무는 헌생을 전의봉사부에서 신발수리공으로 일해왔다.》

《합흥시 동흥산구역편의봉사사업소 신발수리공 리동룡동무는 헌생을 전의봉사부에서 신발수리공으로 일해왔다.》

## 20대 박사가 러친 심장의 목소리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생활산업연구소 연구사 송창일동무

하나의 불망속에 우주가 기쁘다는 말이 있다.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은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 생활산업연구소 연구사 송창일동무의 삶은 우리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자랑한 글이 세기게 한다. 워태한 명도자 김정숙이시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서 불멸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 두메산골에 새겨진 인간사랑의 서사시

한 처녀로동자가 다시 대지를 활보하게 된 이야기

지난 6월말, 김형직군 로란 로동자합속에서 있는 자그마한 뱀살 밭에서 노래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이 울려나오고있었다. 한 처녀와 그의 부모가 부르 는 노래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팔레로 피려면 나는 이 한마을 진팔레로 피려라

...

소속되는 길었고 간간히 흐스 끼는 소리로 쉬어있었다.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눈가엔 뜨거운 것이 고여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실이 있었어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숙이시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 두메산골에 새겨진 인간사랑의 서사시

한 처녀로동자가 다시 대지를 활보하게 된 이야기

지난 3월 중순, 22살 난 로란 로동자합속에서 있는 자그마한 뱀살 밭에서 노래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이 울려나오고있었다. 한 처녀와 그의 부모가 부르 는 노래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팔레로 피려면 나는 이 한마을 진팔레로 피려라

...

소속되는 길었고 간간히 흐스 끼는 소리로 쉬어있었다.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눈가엔 뜨거운 것이 고여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실이 있었어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숙이시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 두메산골에 새겨진 인간사랑의 서사시

한 처녀로동자가 다시 대지를 활보하게 된 이야기

지난 3월 중순, 22살 난 로란 로동자합속에서 있는 자그마한 뱀살 밭에서 노래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이 울려나오고있었다. 한 처녀와 그의 부모가 부르 는 노래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팔레로 피려면 나는 이 한마을 진팔레로 피려라

...

소속되는 길었고 간간히 흐스 끼는 소리로 쉬어있었다.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눈가엔 뜨거운 것이 고여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실이 있었어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숙이시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 두메산골에 새겨진 인간사랑의 서사시

한 처녀로동자가 다시 대지를 활보하게 된 이야기

지난 3월 중순, 22살 난 로란 로동자합속에서 있는 자그마한 뱀살 밭에서 노래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이 울려나오고있었다. 한 처녀와 그의 부모가 부르 는 노래였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팔레로 피려면 나는 이 한마을 진팔레로 피려라

...

소속되는 길었고 간간히 흐스 끼는 소리로 쉬어있었다.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눈가엔 뜨거운 것이 고여있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실이 있었어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숙이시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일성주요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의 이념이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